

강진청자축제 27만명 구름 인파...지역 경제 '활력'

역대 최대 방문객...전년비 54% ↑
특산물·도자기 판매 등 매출 증가
'반값여행' 숙박·식당가 연일 만원
즐기는 축제 패러다임 변화 '주효'



'제54회 강진청자축제'가 열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봄나들이에 나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축제 현장을 즐기고 있다. <강진군 제공>

국내 대표 겨울 축제인 '제54회 강진청자축제'에 27만명의 역대 최대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지역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흘간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총 27만7천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는 전년 17만여명 대비 54% 이상 증가했으며, 이번 축제는 청자와 미술·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축제로 운영되며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폭발적인 방문객 수는 경제 효과로 직결됐다. 축제의 꽃인 청자 판매액은 3억8천300만원을 훌쩍 넘기며 지난해 3억6천600만원을 가뭄히 넘어섰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지난해 1억원 수준이던 매출이 올해는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5억여원을 쓸어 담으며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갔다.

축제장 밖 강진읍 내 상권은 반값여행 혜택으로 두드러진 관광객들의 지갑이 골목 상권으로 고스란히 열리면서 관내 숙박업소는 축제 기간 내내 만실을 기록했다.

대구에서 온 A(60대·여)씨는 "대통령이 극찬한 강진반값여행 소식을 듣고 강진행을 결정했다"며 "관외 도자기 30% 할인과 더불어 반값여행으로 페이백을 받아 매병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한정식을 비롯한 일반 음식점들 역시 밀려드는 수백명의 예약 손님들로 하루 세차례 이상 상을 차려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설 새 없이 손님을 치러낸 상인들 사이에서는 "강진에 불황이란 단어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 같은 전무후무한 흥행 돌풍의 이면에는 축제의 패러다임을 '보는 것'에서 '직접 겪고 즐기는 것'으로 바꾼 치밀한 기획력이 자리하고 있다.

도자 코일링과 물레 성형 등 전통 체험과 테마별 키즈존, 불멍 캠프, 족욕 체험 등을 엮어내며 가족 단위 체류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전세버스 130여대가 한꺼번에 몰린 지난달 28일 대규모 트로트 콘서트 당일에도 유관기관과의 철통같은 공조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결점 행사를 치러냈다.

강진원 군수는 "제54회 강진청자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의 성원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축제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 청소년 목소리 행정에 담는다

20일까지 청소년참여위원 모집

신안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직접 담기 위해 '2026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위원을 전격 모집한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관내 거주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참여위원 신청을 받는다.

선발된 위원들은 오는 4월 위촉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편지 정책을 제안하고, 전국 단위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권익 증진의 최전선에서 활약한다.

참여자에게는 군수 명의 위촉장과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위원회는 2008년 창단 이래 굵직한 족적을 남겨왔다. 지난 2024년 '도시 지역 청소년 여객선 운임 무료 지원'이라는 파격 제안으로 전국 공모전 최우수상을 거머쥔 데 이어, 2025년 우수상까지 연거푸 휩쓸었다.

이밖에 자세한 모집 요강, 신청 방법 등은 신안군청소년 관련 부서(061-240-87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도시·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신안=양훈기 기자

함평군-GIST, 지역특화전략사업 발굴 맞손

빛그린산단 모빌리티·AI 농축산 등 자체 TF 가동... '투트랙' 전략 대응

함평군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과 손을 맞잡고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GIST와 '지역특화 전략사업 발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은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정 방향이 구체화 되고,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의

생존을 담보할 필요성 있는 청사진을 수립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군은 GIST의 독보적인 융합 기술 역량을 지렛대 삼아 첨단 산업의 새 판을 짤다.

빛그린산단을 심장부로 삼아 미래 모빌리티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AX) 기술을 전통 농축산업에 이식해 고부가가치 미래 생명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까지 아우르며, 정부 대형 국책 사업의 물줄기를 함평으로 끌어올 수 있는 논리를 다듬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달 초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41개 핵심 대응 과제를 발굴했으며, 군은 이를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 기획단에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등 외부 환경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초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함평군이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수행할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해남 우수영관광지에서 새김치 담그세요"

郡, 7일 '새봄 새김치 담기 축제' 개최
1천여포기 체험·먹거리 장터 등 다채

전국을 강타한 봄동 비빔밥 열풍에 이어, 얼얼던 땅을 뚫고 자란 해남 겨울배추로 갓 버무린 아삭한 '새김치'가 또 다른 별미로 주목받고 있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겨우내 찬 눈을 맞으며 일고 녹기를 반복한 겨울배추는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응축돼 특유의 달콤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절정에 달한다.

지리적 표시 11호이자 전국 생산량의 80%를 책임지는 해남 배추로 담근 봄 김장은 시어린 묵은김치에 지친 입맛을 사로잡는 남도만의 으뜸 음식문화다.

이에 군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내면 우수영관광지 광장에서 '새봄 새김

치 담기 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관광객과 주민이 한데 어울려 1천여포기의 배추를 맛깔난 해남산 양념에 버무리는 대장관이 연출되며, 소정의 체험비를 내면 현장에서 직접 담근 싱싱한 김치를 담아 가져갈 수 있다.

아울러 바삭한 배추전과 세발나물전, 고소한 두부를 곁들인 풍성한 먹거리 장터와 산지 직거래 장터도 상춘객의 발길을 단단히 붙잡을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봄동 비빔밥 유행이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K-음식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무척 고맙다"며 "올 봄에는 겨울배추로 새김치를 담는 봄 김장문화도 확산돼 농가의 안정적인 배추 농사는 물론 한국 김장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韓축제콘텐츠 '대상'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야간 체류형 관광 등 호평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문화유산으로 공인받으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품 축제의 위상을 입증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한 '2026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문화유산·역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은 전국 단위의 축제에 대해 ▲축제 운영 성과 ▲방문객 인지도와 만족도 ▲콘텐츠의 차별성 ▲안전관리 체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해 축제에서 군은 야간 체류형 관광객



을 겨냥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진도 무형유산 공연, 흥주 레드로드 등 지역의 독창적인 색채를 입힌 콘텐츠를 선보이며 찬사를 이끌어냈다.

특히 철통같은 안전 관리 시스템과 해양 자원을 절묘하게 엮어낸 탁월한 기획력이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탄 진도군은 다음 달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제46회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에서 총감독 체제 아래 바닷길스

토리텔링을 한층 강화하고, 평일 관광객의 발길까지 이끌 체류형 상생 콘텐츠를 촘촘하게 설계 중이다.

김희수 군수는 "이번에 받은 대상은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지역 주민과 함께 축제를 운영해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대불산단 사업장 점검

고용당국이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대불국가산업단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전날 2건의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한 대불산단 내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점검은 사고 원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장의 재발방지 대책 이행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도영 광주지청과 용노동청장과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고 발생 경위 및 현장 안전조치 사항 확인 ▲위험요인 제거·통제 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계획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확인된 안전보건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와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며, 사업주·현장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이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완도군, 어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

총 59억원 투입 '인증 직불금' 등

완도군은 4일 "총 59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유통망 확장과 폭발적인 수출 증대를 견인할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전북과 미역 등을 기르는 478개 어가에서 유기·무항생제 등 까다로운 국내 인증을, 80개 어가에서 ASC 등 세계적인 국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인증 직불금'을 필두로, 글로벌 수출길을 열어줄 국제 인증 절차 지원에 3억4천만원 투입한다.

더불어 유기 수산물 맞춤형 판서 컨설팅(1억4천만원)과 인증비 지원(8천4백만원)까지 촘촘한 그물망 지원을 쏟아붓는다.

군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산물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정바다 완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완도산 시메(사진 왼쪽)와 전복. <완도군 제공>